



‘살기 좋은 우리동네 만들기’ 환경 시민대토론회 열린다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지역 주민단체와 함께 서울시 5개구 시민대토론회 개최

오는 96년 12월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살기 좋은 우리마을 만들기’라는 주제로 환경 시민대토론회가 열린다. 이 토론회는 서울시 행정의 시민참여기구인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주최로 개최되는데 푸르고 깨끗한 녹색 서울을 만들기 위한 환경사업으로서 구청과 함께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주체의 시민토론회가 될 것이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5개구에서 실시하며, 내년부터는 서울 25개 모든 자치구의 연례행사로 자리잡아 지역주민들의 정기적인 정책건의와 행정참여의 장으로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이 환경 시민대토론회에서는 지역주민을 비롯하여, 지역주요인사, 지역단체, 주요 공무원, 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해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한 제안과 견해를 발표하고 토론하게 된다. 이 시민토론회는 기존의 행정관청 중심의 주민설명회가 아니라 시민들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시민토론회라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의와 기대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번 환경 시민대토론회는 “지역생활환경개선과 주민참여”(은평구, 성동구) 또는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참여”(관악구, 구로구, 강동구) 정해졌다. 앞으로 지역을 개선하는 여론광장으로 자리잡아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될것이라 기대한다.

특히 이번 시민대토론회는 주민 문화잔치가 곁들여 꾸며져 더욱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예정이다. ‘어른을 위한 환경동화’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설 『연어』를 녹색예술모임에서 뮤지컬로 각색하였다. 이 공연은 생명의 아름다움과 환경의 중요함, 인간이 잃어가는 소중한 것들을 되찾아주기 위해 감동적인 자리가 될 것이다.

역사상 최초로 이루어지는 이 뜻깊은 행사에 살맛나는 녹색서울과 주민자치의 마을 만들기를 갈망하는 모든 시민들의 깊은 관심이 있기를 바라며 이 시민정책건의 시간에 좋은 의견들을 많이 제시해 주기를 희망한다.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서울시 조례에 의거하여 96년 2월 시민환경단체, 각계전문가, 지역주민대표 등 100인으로 발족되었습니다. 이는 서울시 최초의 시민위원회이자 세계사에도 유례가 없는 시민기구로서 시민이 행정의 일부를 직접 맡아 시민의 소망과 시민자치의 이상을 구현해 가는 행정기구입니다.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소개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1000만 서울시민의 이름으로 시민참여의 시대를 열어나가고 있으며, 모두가 건강하고 더불어 살 수 있는 서울의 녹색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 활동내용은 서울시 환경정책, 환경행정에 참여하여 시민의 뜻을 반영하며, 지역 시민단체 활동을 지원하고, 올해는 환경교육, 시민공청회, 지역환경감시단, 서울의제 21 작성 및 다양한 시민환경사업등 80여 가지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00만 서울시민 모두가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주인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데 시민의 노력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박영숙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장 인사

시민참여는 지방자치의 꽃



서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00만 시민의 뜻을 받들어 서울시 시정의 올바른 견인차가 되고 녹색정책으로 서울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서울시 행정에서 시민참여기구로 발족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장 박영숙입니다.

우리는 지금 삶의 질을 추구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개인이 물질적으로 풍요롭다고 잘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물과 대기, 토양등의 자연환경이 이미 커다란 규모로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으며, 또한 공공시설을 비롯, 함께 누리는 교통, 공원등 생활환경, 지역의 체육시설, 문화시설등 문화환경이 우리 생활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는 지역은 잠만자는 공간이 아니라 생활의 공간이자 삶의 터전입니다. 그리고 자치의 시대를 맞아 지역은 지역의 주인인 주민이 스스로 가꾸고 누리는 고향입니다.

환경은 모두의 자산이자 삶의 조건입니다. 그러나 도시생활에서 필수적인 우리의 환경은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있어 우리 서울의 경우 스모그와 오존 등으로 천식, 비염등 환자가 예년에 비해 올해 유례없이 급증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공해에 대해 이렇다할 해결책은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신문보도에서는 현재의 오염이 악화되면 서울인구의 0.3%가 대기오염 때문에 앞으로 사망할 수 있다는 걱정어린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문제는 1천만 시민이 한마음으로 함께 노력하는 길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환경문제 해결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가 봅니다만 대부분의 영국, 독일, 일본등 공해 피해를 먼저 겪은 나라들의 사례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훌륭하게 해결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70년대 공해병으로 유명하던 이웃 일본의 경우도 70년대의 1/4수준으로 환경오염을 개선하여 세계1위의 환경 선진국으로 평가받고 있기도 합니다. 이는 정부와 시민, 기업이 함께 힘써 노력한 결과입니다. 주민들이 자각하여 자신의 삶과 환경을 지키기 위하여 도시를 완전히 개조한 것이지요.

이번에 열리는 ‘환경 시민대토론회’는 서울시민에게 의미가 큰 행사입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일이 지방자치시대가 아니면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며 각 지방자치체, 지역환경단체, 지역주민이 삼위일체가 되어 시민의 의지를 모아낼 수 있는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서울은 시민의 참여로 이루어 내어야 할 일이 매우 많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시설, 쾌적한 생활환경, 동네마다 공원과 녹지가 있어 주민들이 함께 휴식하고 정을 나눌 수 있고, 동별 생활권 별로 문화공간 등이 마련되어 삶의 질이 보장되고 생활이 펼쳐지는 터전으로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환경시민대토론회’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오신 성동구, 관악구, 구로구, 강동구, 은평구의 시민단체와 이 일의 성사에 도움을 주신 여섯 개 지방자치체의 구청장님을 비롯해 실무 공무원들에게 무한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녹색서울의 미래상

“살맛나는 녹색서울 만들기” 사실 우리는 그 답을 어렵פות하게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룰 마음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뭐가 남았죠? 우리가 같이 그리는 21세기 청사진, 그 청사진을 함께 만들자는 약속이 남았지요. 이제 그 약속의 청사진을 그려봅시다. 그리고 그 약속을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미래에 살아갈 우리의 태어나지 않은 21C 주인공들을 위해서...

“... 이제 우리는 멀리서가 아니라 자기 몸 가까이에서 녹지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산책도 하고 가족과 함께 휴일을 보낼 수 있어야 한다. 도로마다 나무와 꽃을 실은 환경시설대가 보행자와 자동차 사이에서 완충역할을 하고, 동네 길모퉁이에서는 어김없이 푸른 나무가 동네 사람들의 보살핌 속에서 자랄 수 있다면 바로 주위에서 훌륭한 녹지를 가질 수 있다. 그것은 결코 사치가 아니라 도시의 필수적인 생존조건이다. 그것을 통해 매일매일 활기차고 넉넉한 삶을 재생산 해낼 수 있게 된다.” (건고 싶은 서울 만들기 중에서)

서울하늘 모두 함께 푸르게

남산의 소나무는 얼마나 살고 싶었으면 수없는 잔술방울을 맺으며 변해갈까? 여름의 오존경보와 겨울의 스모그, 시커먼 분진은 일년내내 시민을 기관지 질환을 앓게 하고 항상 도시인에게 피로의 무게를 덧씌운다. 서울의 공해는 현재대로라면 10년 후에는 현재의 2배 2020년에는 4배로 악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현재도 선진국 도시(0.02ppm)의 2.5배 수준인 서울의 대기오염(0.05ppm)! 서울 대기오염의 54%를 차지하는 경유자동차, 대기오염의 23%를 차지하는 승용차! 늘어가는 자동차의 나날이 심해지는 매연! 어떻게 우리 환경을 되살릴 수 있을까요?



환경문제해결을 위한 실천과제

- ① 지방정부는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주민 공해방지 환경실천운동을 전개한다.
- ②區別 정기적인 시민환경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역환경과 공해에 대한 정보를 전시회, 게시판, 비디오, 문화공연등으로 널리 알려 시민의 참여와 실천을 도모한다.
- ③ 승용차 사용감소, 과소비 절제, 쓰레기의 절감, 문화적 삶의 추구 등 친환경적인 녹색생활양식을 정착한다.

인간다운 도시, 걷고싶은 거리



거리는 생활이 연출되고, 만남이 이루어지는 문화공간이다. 그러나 우리의 서울은 문화가 없는 거리, 정과 멋을 빼앗긴 도시, 자연의 숨결을 잃어버린 회색도시가 되어버렸다.

자가용 위주의 교통정책 덕분에 우리의 자동차 1일 이용량은 일본(15km), 미국(23km)보다 많은 27km로 도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서울의 자동차는 220만대, 주차장율은 54%, 그러나 머지않아 400만대에 이를 자동차, 우리의 생활공간은 또 얼마나 줄어들까? 산으로 셋강으로 하염없이 뚫리는 도로건설, 도로 1km 뚫는 비용이 1000억, 우리의 세금을 진정한 삶의 질과 복지에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의 선택은 무엇일까?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과제

“도시에서 인간성, 녹색성을 되찾고 21세기의 새로운 사회질서와 도시기반을 형성하는 녹색 공동체 운동을 전개한다.”

- ① 자동차보다 사람위주, 개발보다 생활과 환경위주의 생활정치, 녹색행정의 구현
- ② 동네내부의 1개씩은 녹도, 녹지축으로 산책로, 보행 및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
- ③ 안전하고 편안한 거리, 광장이 있고, 문화를 창조하는 거리
- ④ 자연과 조화되는 지역사회 건설과 1개동 1개씩의 근린공원 실현

숨쉬는 역사, 함께 나누는 사회, 꽃피는 문화

사려없는 환경파괴, 남을 생각지 않는 개인주의, ‘더벌고 더쓰기 질주’ ‘브레이크 없는 벤츠’인 『물질소비 무한경쟁』은 공멸의 길임을 1000만 시민 누구나 잘 알고 있다. 지방정부의 현명한 정책전환! 문화 투자를 통한 정신문화, 자연친화 위주의 생활양식의 변화! 경쟁적, 소비적 가치관의 소멸과 문화적, 공생적, 성찰적 가치관의 형성! 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이다. 21세기 문화 사회의 진입을 앞두고 미래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이다. 또 문화적 삶의 질이야말로 행복의 궁극적 척도가 될 것이다.

환경 문화사회 형성을 위한 과제

- ① 현재 9%인 문화복지 예산을 20%(대만수준)로 점차 선진국 수준(독일 35%, 영국 50%)으로 끌어올려 낙후된 도시문화를 집중 육성한다.
- ② 향토역사의 복원과 문화유산의 보전으로 지역공동체기반을 마련한다.
- ③ 동별로 주민문화센터를 만들어 생활자치, 지역문제, 환경문제를 해결할 주민실천의 중심지로 활동한다.
- ④ 자치구별로 상징공원, 문화공원을 조성하여 지역문화역사, 지역사회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종합광역공원을 만든다.

시민제안

시민주체의 지방자치로 쾌적한 환경, 인간성 회복, 풍요로운 지역문화를 만들자

동사무소를 확대개축하여 환경센터, 근린공원 그리고 종합문화센터로 만들자!

지방자치를 맞이함에 따라 서울시의 3단계 행정체계(시청-구청-동사무소)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시청과 구청 2단계로 축소되었다. 동사무소는 법적으로 존립근거가 없어져 곧 사라질 운명이다. 현재 서울시는 대부분의 동사무소를 98년도에 지역 복지관으로 전환할 계획을 검토중이다. 지역문화공간이 없는 서울시민들에게 이는 희소식이자 은근한 기대에 부풀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동네에는 변변한 체육시설도, 문화공간도, 도서관도 아예 없기 때문에 혹시 살림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은근히 기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라지는 동사무소

그런데 구청의 대책을 보면 시민의 부푼 기대에 비해 너무 미흡하다. 고작 주부 서예교실, 에어로빅, 한문교실, 컴퓨터

교실, 영어회화 교실 등 기능적인 강좌를 그것도 동사무소 마다 1개씩만 운영하고 있어 마치 창고에서 자린고비 1마리를 꺼내 눈요기만 시키고 있는 듯하다. 틀에 박힌 형식교육으로 말이다. 이런 내용이라면 TV 보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지역사회에서 이웃과 함께 삶을 나누고 생활의 지혜를 배우고 교류하는 지역 공동체를 갖는 일일 것이며, 지역의 숙원문제나 환경문제 등 지역가꾸기를 펼쳐가는 지방자치의 산실이 되도록 하는 일일 것이다.

지방자치의 산실이...

동사무소는 주민센터(부녀교실, 시민교실, 환경교실), 문화센터(도서관, 청소년 센터, 공연장), 체육센터, 목지센터(어린이 방과후 학교, 노인교실, 유아

원) 등으로 이용될 수 있고, 재활용 시장, 농촌 직거래 및 음식폐비사업본부, 생활협동조합 등 환경센터로서도 기능할 수 있다.

문화센터와 환경센터로...

나아가 동사무소 인근의 부지를 확대한다면 지역의 휴식터인 근린공원으로 그리고 그 지하는 지하 공동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지역의 골목주차문제 해결의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동마다 약 1000평 부지에 500평 건물 4층 이상이 필요하며, 서울시 527개동을 대상으로 할 때 예상소요 예산은 2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과감한 문화, 복지 투자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한 서울시의 공원 5개년 확충계획예산이 1조5천억이고 이것이 근린생활과 주민의 직접적인

생활향상 보다는 소극적으로 확보된 복지의 정비 차원에서 진행되어 아쉬운 느낌을 주는데 이러한 공원확충계획과 비교할 때 동사무소의 주민센터, 종합문화센터의 전용과 근린공원 확보안은 훨씬 주목할 만한 주민의 필요성에 틀림없다.

생활공원과 휴식터로...

동사무소를 종합 문화 센터로 전환하는 것은 주민의 잠재력을 고도로 드높이고 이를 지역발전, 사회발전으로 승화시키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시민자치의 시대를 맞아 지역 커뮤니티 센터를 통한 지역공동체 사회의 건설은 삶의 질 향상의 가장 근본이 되는 기초를 형성하는 것이며, 이것이 발전하여 지역환경을 개선하고, 좋은 마을을 꾸려가고 훌륭한 지역 생활만들기를 창조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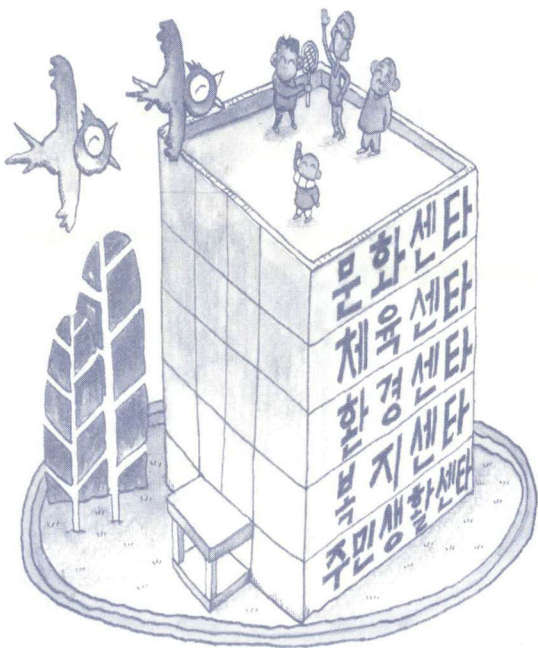
녹색도시란

- ①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에 뿌리박고
- ② 미래세대의 이익을 항상 고려하면서
- ③ 자연과 공생하고 쓰레기와 공해를 줄이는 생태도시.
- ④ 지역주민이 모든 활동의 중심이 되고,
- ⑤ 시민참여가 도시개발에 핵심이 되는 시민주체도시.
- ⑥ 시민끼리 서로 배우고 협동하는 공동체적 문화도시.
- ⑦ 세계를 향해 전국민이 전문가로서 성장할 수 있는 평생교육의 문화도시이다.

이러한 녹색도시란 기존의 도시를 조금 손보는 것으로 실현될 수 없다. 시민이 함께, 지역의 청사진을 그리고 주민들의 손으로 마을 만들기, 생활만들기가 이루어 질 때 가능하다.

주민모임과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의 생활과 문화가 펼쳐지는 주민자치의 잠재력이 마음껏 펼쳐질 때 가능하다.

주민모임, 주민참여의 활성화와 지원은 녹색도시 만들기의 생명, 나무심기이다.



서울시, 지방의제 21 작성시작

지방의제 21은 지구환경위기를 맞아 온 인류가환경을 살리기 위해 나서는 세계적인 범시민 운동입니다. 더불어 이는 단순한 환경보호운동이 아니라 사회 개혁운동이며, 의식개혁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시민참여의 본보기로서 시민이 지역사회를 가꾸고 관리하며,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것이며, 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서울에서도 「살맛나는 녹색서울 만들기」라는 애칭으로 올해 말부터 서울시, 시민, 기업 3주체가 함께 추진하게됩니다.

지방의제 21은 지구를 위한

지역의 행동계획, 새로운 계획이다

서울의제 21이란 21세기 살기좋고 아름다운 녹색서울을 만들어 가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할 일 미래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공

공, 시민, 기업 3주체가 약속하고 함께 노력해야할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1000만 시민의 이름으로 지키고 실천해 가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과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세상은 시민과 공공, 기업이 진정으로 전체를 생각하며, 하나된 마음으로 노력하면 결코 멀지 않습니다. 범시민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이 지구적인 시민운동에 깊은 관심과 동참으로 푸르고 살맛나는 서울을 만들어 갑시다.

서울의제 21은 대기 / 수질 / 폐기물 / 생태 / 교통 / 도시 / 문화 복지 8개 분야로 나뉘어 분야별 포럼 형태로 진행되며 참여를 원하시는 시민께서는 전화문의(T.778-0311)를 바라오며, 정책건의 등을 제안하시려면 (천리안 ID: greeneco)로 편지를 보내주시십시오. 보내주신 의견은 각 분야별 분류에 따라 포럼에 제출하고 좋은 의견은 적극 반영하며 소정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로 희망의 사회를

앞으로 21세기를 위한 최고의 국가경쟁력은 무엇일까? 수출일까? 컴퓨터 산업일까? 그것은 바로 시민의 잠재력을 어떻게 꽃피우느냐? 어떻게 낭비를 최소화하느냐? 어떻게 미래를 앞서가느냐? 어떻게 사회를 통합하느냐? 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중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시민의 잠재력이요, 사회의 미래가치를 중심으로하는 사회통합일 것이다. 그것은 환경사회, 녹색세상을 만들어가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다.

〈시민참여와 생활자치의 시대를 위한 과제〉

- ① 도시계획, 재개발등 사업정책형성단계에서 주민참여 기회 확대
- ② 시민토론회등 시민과 함께가는 시민시정의 확립
- ③ 복지/환경보전 분야의 행정서비스는 주민, 시민단체와 함께 생산.
- ④ 지역사회문제를 같이 해결해 갈 수 있는 시민지역자치 연구센터 설립
- ⑤ 주민모임, 주민자치활동 육성 지원

녹색서울 환경감시단을 소개합니다.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구별로 60여명의 지역주민으로 지역환경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본환경교육과 함께 지역환경의 측정, 불법소각방지, 오염원 추적과 감시, 수질오염과 새강살리기 시민운동,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의 노력 등을 통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에 앞장서고 있으며 지역환경개선을 위한 정책적, 실천적 노력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시민주체의 녹색도시 만들기 첫 걸음이 될 지역환경감시단 사업에 일꾼이 되시고자 하시는 분들을 적극 환영합니다.

(연락처 : 778-0311)

“살기 좋은 은평 만들기 시민 토론회”를 실시하며...

〈일본의 마을만들기운동〉

바야흐로 세계는 지방자치의 시대입니다. 세계의 모든 도시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자기 동네의 권리에 대해서는 강하게 옹호하고,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 나가려 하는 추세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동네의 문제에 대해 그 동안 너무나도 무관심하였습니다. 우리 동네의 이름이 어떻게 유래되었으며, 전통문화에는 무엇이 있으며, 학생들의 통학로는 어떠한지, 하천은 얼마나 오염되어 있으며, 우리가 어린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등등 모르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항상 ‘조금만 있으면 이사갈텐데’, ‘그 문제는 나하고 관계없어’, ‘돈만 잘 벌면 그만이지’ 하는 소극적 태도로만 처신해 온 것이 아니었는지 반성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우리들의 관심과 힘으로 행정부의 활동에 참여하여 우리 동네를 정말로 ‘살맛나는 동네’, ‘주민자치의 공간’으로 만들어 봅시다.

외국에서는 이미 ‘지방의제 21’이나 ‘마을 만들기 운동’ 등을 통해 주민들 스스로 지역 나름의 구체적 이면서 장기적인 발전구상(비전)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찾고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서울만들기 환경시민대토론회”를 준비하는 단체들은 이러한 활동의 선두주자들입니다.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 동네의 문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 구청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봅시다.

시민들의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행정의 개혁과 진정한 지방화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에 서울 YMCA녹번 종합사회복지관은 ‘살기 좋은 은평 만들기 시민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살기 좋은 은평을 만들기 위한 지역사회 공론형성과정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기대합니다.

일본은 70년대까지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갖가지 지역 문제를 심각하게 겪었습니다. 주민들은 이러한 문제가 자신들의 생계와 아이들 교육, 건강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였습니다. 지방의 행정부도 이러한 노력에 적극 동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마을만들기운동’입니다. 70년대 중반부터 전개된 이 운동은 이제는 전국에 수천 개의 사례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마을만들기운동’을 통해 일본의 지역주민들은 환경문제를 포함하여 지역의 산업과 사회복지, 상가 활동, 교통문제 등을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하였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들이 합의한 목표입니다. 우리 동네의 가까운 미래도 이러한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 ① 우리는 우리 동네를 자연과 공생하는 녹지를 육성하여 그 곳에서 마음껏 뛰놀고 새나 곤충을 가까운 곳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마을, 계절의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마을로 만듭니다.
- ② 우리는 우리 동네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낭비가 없는 마을, 자원을 충분히 재활용하여 폐기물을 만들어 내지 않는 마을로 만들어 간다.
- ③ 우리는 우리 동네를 여유 있고 쾌적한 도시공간으로 창조하기 위해 도시의 여러 쉼터(오아시스)가 그물망처럼 연결된 마을, 지나치게 북적대지 않는 마을, 자동차나 공사로 인해 시끄럽지 않은 마을, 옛 풍경을 소생시키면서 새로운 풍경을 동시에 창출해 나가는 마을로 만들어 간다.
- ④ 우리는 우리 동네를 환경과 조화하여 사람들이 손수 만든 숲씨들이 잘 활용되는 마을, 모든 사람들이 서로 부드럽게 어울리는 마을, 인간적 유대관계를 통해 사는 보람과 기쁨을 발견하는 마을, 어린이들을 환경에 대해 생각하고 배우며 능동적으로 움직이도록 키우는 마을로 만들어 간다.

이런 마을 어때요?



진관내동 440번지 한양주택은 서울시가 선정하는 푸른마을로 선정되었습니다.

단독주택 194세대로 구성된 이 마을은 담장대신 창나무를 비롯 쥐똥나무, 삼나무등으로 경계를 삼고 있으며 단정하게 손질된 낮은 울타리는 8.3km나 됩니다. 또한 넓지 않은 마당이지만 각 가정마다 감, 대추, 살구나무를 심어 가을철이면 주렁주렁 열매들이 매달려 있습니다.

담장없는 동네라 도둑과 범죄가 많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이곳에서 수년동안 단 한건도 범죄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서로의 벽을 허물고 이웃을 믿고 사니까 사람들이 나쁜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1부 시민토론회

- 인사말씀 이배영(은평구청장)
박영숙(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장)
전대련(서울YMCA회장, 시민토론회 준비위원장)
- 기조발제 “21세기 지속 가능하고 살기 좋은 은평 지역 사회를 위하여”
- 연구발표 1. 살기 좋은 은평을 만들기 위한 은평주민 설문조사
2. 살기 좋은 은평을 만들기 위한 여론주도층 설문조사
3. “살기 좋은 은평을 만들기 위한 시민 제안”
- 시민제안 1. 생활안전-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제안
2. 사회복지-서로 돕는 은평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제안
3. 지역문화-지역문화가 꽃피는 매력있는 지역사회를 위한 제안
4. 지역환경-쾌적한 환경, 마음이 풍요로운 지역사회를 위한 제안
5. 청소년교육-청소년이 밝게 크는 지역사회를 위한 제안
- 일시 : 1996년 12월 6일 (금)
장소 : 은평문화예술회관
주최 :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주관 : 은평구청, 서울YMCA녹번종합사회복지관
협찬 : 은평케이블TV, 서부신문, 은평신문

2부 뮤지컬 연어

어른을 위한 동화, 은빛연어와 함께 인간의 삶을 되돌아보는 환경 뮤지컬입니다.

- 장소/시간 : 은평문화예술회관 공연장 4시~5시
- 공연극단 : 녹색예술모임 「금수강산」

함께하는
은평,
살기좋은
은평!

겨울 어린이 축제

살기 좋은 은평만들기 시민토론회는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친구들과 더불어서 즐거운 놀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동심을 간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어린이 겨울축제’를 펼칩니다.

- 어린이 영화상영
 - 요술풍선 만들기
 - 신나는 놀이마당
- 장소는 : 은평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시간은 : 오후 1시30분 부터 4시까지
· 은평지역 어린이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의 / 안내 : 서울 YMCA 녹번종합사회복지관 388-6341/3

96년 2월에 개관한 서울YMCA녹번 종합사회복지관은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복지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 지역복지네트워크 형성등을 토대로 주민참여확대살기 좋고 서로 돕는 은평구, 지역복지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 지역복지 네트워크 형성 등을 통해 “살기 좋고 서로 돕는 은평구”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